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3.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2014. 05. 25.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는 중에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음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시간이 되어서 오늘로 미웠습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성경적인 설명을 들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참 생명을 얻게 할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병이 든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서 살려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온다고 하면 그 환자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 인류는 예외 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 죽을병이 든 환자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복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의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는 사람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지요. 진화론은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학문이지요. 그것은 사람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경의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진화론은 결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인간을 최초로 스스로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단의 주장을 소위 과학이라는 허울을 쓴 학문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단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부터 계시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므로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복음의 첫째 사실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로 존재하게 한 사람을 죽는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즉 존재를 상실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존재하게 한 것을 상실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람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구원은 바로 재창조를 뜻합니다. 사망으로 존재를 완전히 상

실한 것을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창조와 재창조를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천사로 표상된 사자들이 결국 창조와 재창조를 믿고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주를 올바르게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군요?(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단서가 붙었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3:7을 읽어봅시다.

[암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시간을 작정해 놓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때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행17:31을 볼까요.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천하를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고 계시하지요. 그 작정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옳다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자기를 존재하도록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되시고 그가 존재하게 한 피조물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자기의 존재가 영원히 확정된다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존재하느냐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느냐를 가리는 판결이고 그렇게 판결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3. 그러면 그 때가 이 세상의 역사적 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지요. 이 문제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심판하시는 장면을 계시해주셨습니다. 단7:9~12입니다.

[단7:9~12]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

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이런 심판 장면이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시록 20:11~15입니다. 봅시다.

[계20:11~15]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 광경을 기록한 곳은 이렇게 두 곳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의 장면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장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지요. 성경에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 것을 계시한 것은 이렇게 재림 전에 한번 재림 하신 후,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한 번 이렇게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가 천년왕국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20장을 공부할 때 살필 것이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재림 전에 있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작성된 역사적 시간도 다니엘서에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려면 피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결석 재판을 한다고 해도 피고는 있습니다. 피고가 없는 재판은 없지요. 그러면 이 재림 전 심판의 피고가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는 피고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 그가 왜 심판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4. 재림 전에 있을 작성된 심판의 시간에 피고는 누구입니까?

답: 단7:11,12절을 보면 그 피고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빨입니다. “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빨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심판의 대상이 큰 말하는 작은 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작은 빨이라고 표상적으로 계시되었지만 역사에 등장한 작은 빨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자세히 계시한 것이 다니엘 8:9~14입니다. 읽어보지요.

[단8:9~14] 그 중 한 빨에서 또 작은 빨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

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도 작은 뿔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의 형태를 달리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지만 작은 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7장에 작은 뿔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뿔은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자기가 차지합니다. 또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이것이 작은 뿔의 행태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재림 전 심판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은 단8:14의 2300주야 끝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된 날입니다. 2300주야는 그 시작이 기원전 457년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24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여 강론할 시간은 아니지요. 원하시는 분은 작년 다니엘 강론 CD를 구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 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1844년에 속죄일에 해당됩니다. 1844년 속죄일은 양력 10월 22일에 해당되지요. 속죄일은 유대력 티스리월 10일인데, 1844년 티스리월 10일이 바로 양력 10월 22일입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기록되었는데요, 성소가 정결하여지기 위해서 허물어진 성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분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또 땅에 던져버린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5. 말씀을 들으니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어떻게 성소정결이 심판이 됩니까?

답: 이유가 간단하지요.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자기가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판결이 나면 헐린 성소가 재건되고 제사는 원래 제사장이 하도록 환원되면 그렇게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정결은 곧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울러 성소문제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성경에 계시해주신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된 진리를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진리를 따를 것인지 거절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로, 계시록에서는 바다짐승으로 표상된 그 조직과 세력의 교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판결한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심판으로 선포된 사실에 반응하는 것으로 자신을 심판에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6.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집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답: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창조주로 섬기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경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의 내용과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십계명은 다 알 것입니다. 외우지 못해도 십계명이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대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오늘날 교회가 작은 뿔의 속임수에 의하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일의 첫째 날은 성경의 하나님 예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날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지 않은 날을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여 예배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잘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종교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바로 창조의 복음이며 창조주를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7.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심판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심판에 연관되도록 안식일이 심각한 것입니까?

답: 계14:6,7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넷째 계명의 글귀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외침이지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겔20:20을 읽어봅시다.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안식일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가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가 된다고 한 것이지요. 안식일이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표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며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7장에서 말씀드렸고, 14장 1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한 이름 여호와라고 했지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며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심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올바른 경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되는 셈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1계명

부터 4계명은 일반 도덕법은 아니지요. 그것은 종교법입니다. 5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일반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법이라고 말한 1~4계명에서도 3계명까지는 일반 종교법으로도 괜찮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수 있지요. 또 그 신을 섬기는 것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좋다고 할 종교가 없지요. 그러니까 3계명까지는 어떤 종교라도 말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4계명은 옛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한 신이 감히 명령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지 않은 신이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넷째 계명은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외에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작은 뿔은 이것을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주일의 첫째 날을 부활하신 기념이라고 그럴듯한 설명을 붙여서 성수하라고 한 것이고 작은 뿔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7:25에서 그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종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빨리 오류에서 돌아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심판 아납니까?

8. 그렇군요. 제4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에 대한 태도가 되겠습니다.(그렇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고 야고보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세 천사가 기별을 전파하는데, 첫째와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큰 음성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말한다고 했지요. 그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째는 심판의 결과에 대한 선포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리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셋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기별을 따라 개혁하도록 촉구하는 간절함이 담긴 음성으로 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9.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다 준행하는 생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인 2300주야가 가까웠을 때에 이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심판의 결과로 땅에 던져졌던 진리가 회복되고 헐렸던 성소도 회복되고 작은 뿔이 스스로 차지했던 매일의 제사도 예수님께로 회복되었습니다. 헐렸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성소봉사를 하시는데, 작은 뿔은 하늘성소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소를 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속죄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지상의 사제들에게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매일의 제사를 예수님에게서 제하여버

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정결로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성소가 있고,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봉사를 하시며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래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창조주를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존재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이지요.

10.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답: 아무쪼록 애청자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개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둘째 천사의 기별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창조와 구속, 곧 재창조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창조와 재창조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